

# 농촌주민의 적정음주 습관형성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전략에 관한 연구

김 미 혜  
신성대학 간호과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농촌은 아직도 도시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 많은 측면에서 열세에 있다. 이로 인해 농촌주민들은 건전한생활양식으로의 유도가 어려운데, 음주에 관한 습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불건전한 생활양식에 있어서 손실의 크기가 크고 예방 가능한 것 중의 하나가 잘못된 음주이며, 건전한 생활습관으로의 유도는 행태변화를 위한 보건교육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에 농촌주민의 음주특성 및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행태변화 단계에 따라 적정음주 습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02. 3. 4 - 4. 5 사이에 충청남도 D군 소재 1개 보건진료소 관할 6개 리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467부의 자료를 SPSS-PC 10.0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농촌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적정음주의 빈도 및 양은 주 1-2회 이하, 1회 음주량이 소주 반병 이하였다. 현재 음주자의 구성비가 비음주자의 구성비보다 다소 적었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적정 음주자에 있어서 적정음주를 습관화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행태변화 준비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음주자의 음주빈도 및 양이 주관적인 적정음주 빈도 및 양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적정음주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행태 특성은 혼자마시는 것, 반주를 즐기는 습관, 2차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이었으며, 적정음주나 금주 실패 이유는 술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서와 농사일이 고되기 때문이었다. 농한기는 여럿이 모일 기회가 많은데다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음주량 및 음주횟수가 많아지는 기간으로 나타난 바, 농사시기별로 차별화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환경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집

에서 술을 담그는 풍습 또한 적정음주에 대한 부정적 환경으로 나타났다.

3. 적정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향요인은 건강인식, 술의 효과에 대한 기대, 과음조장적 음주규범에 대한 태도, 음주통제력이었고, 강화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였으며, 촉진요인은 보건진료소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4. 보건교육 요구도는 이전에 경험했던 음주관련 지식원의 도움정도가 클수록 높았다. 보건교육 시 참여의사는 비교적 낮은데, 그 이유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나 흥미가 없어서라고 함으로써 적정음주를 위한 보건교육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주민의 음주행태는 계획이전단계, 계획·준비단계, 행동·유지단계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단계별 적정음주 습관형성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전략 요소는 1) 계획이전단계 : 인식개선, 동기화, 경험의 공유, 재인식 2) 계획·준비단계 : 가치측정, 변화에 대한 무력감 탈피, 습관형성, 행태강화 3) 행동·유지단계 :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여유도, 생활양식의 전환, 환경개선이 도출되었다.